

# 코스닥 지각변동... 바이오株 밀어내는 게임株·2차전지株

시총 2위 셀트리온제약 4위 하락  
카카오게임즈 다섯계단 올라 3위  
백신 접종 후 바이오주 시총 축소  
바이오 빈자리엔 게임주·2차전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종목군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각광받던 바이오주 대신 게임주와 2차전지 관련주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18포인트(0.59%) 하락한 1043.65에 장을 마감했다. 이른바 '천스닥'을 이어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백신 접종 시작되자 바이오주 하락

코스닥 시총 순위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 말 상위 5종목을 굳건히 지키고 있던 바이오주의 시총이 대폭 축소됐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투톱을 유지하던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의 시총이 눈에 띄게 급감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시총은 지난해 말 24조 7450억원에서 17조 4054억원으로, 같은

〈2020.12.30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순위	종목명	시가총액
1	셀트리온헬스케어	24조7450억원
2	셀트리온제약	8조5444억원
3	씨젠	5조631억원
4	알테오젠	5조464억원
5	에이치엘비	4조8997억원
6	SK머티리얼즈	3조7739억원
7	에코프로비엠	3조5780억원
8	카카오게임즈	3조4063억원
9	필어비스	3조4046억원
10	케이엔더블유	3조2135억원

기간 셀트리온제약은 8조5444억원에서 5조5696억원으로 줄었다. 시총 규모가 각각 29.66%, 34.81% 감소했으며, 셀트리온제약은 상위 2위에서 4위로 밀려났다.

코로나19확산 속에서 바이오주가 각광을 받았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 시총 규모도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김형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확진자가 1000명 이상 나오면서 단기 강세를 보였던 진단 업체들이 수익 실현 매물 출회로 조정세를 보였다"며 "향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모멘텀 플레이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1.07.19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순위	종목명	시가총액
1	셀트리온헬스케어	17조4054억원
2	에코프로비엠	6조3500억원
3	카카오게임즈	6조2767억원
4	셀트리온제약	5조5696억원
5	필어비스	5조3904억원
6	씨젠	4조422억원
7	SK머티리얼즈	4조81억원
8	CJ ENM	3조8244억원
9	알테오젠	3조7160억원
10	에이치엘비	3조6755억원

### ◆게임주, 2차전지주 뜬다

바이오주의 빈자리는 게임주와 2차전지 관련주가 자리 잡았다.

코스닥 대표 게임주로 꼽히는 카카오게임즈와 필어비스는 지난해 말 시총 8, 9위에서 3, 5위로 4~5계단씩 상승했다. 카카오게임즈의 시총은 지난해 말 3조4063억원에서 6조2767억원으로, 필어비스이 경우 같은 기간 3조4046억원에서 6조3904억원으로 늘었다. 두 종목 모두 시총 규모가 80% 이상 급등했으며, 주가도 두배 가까이 치솟았다.

카카오게임즈의 주가 상승은 모바일 게임 '오딘: 발할라 라이징(오딘)'이 이끌었다. 지난 16일에는 카카오게임즈의 주가가 장중 8만9000원대까지 치솟

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필어비스의 경우 중국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권) 발급 재개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검은사막' 모바일 게임의 중국 시장 확장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본격적인 실적 개선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분석이다. 내년에는 '붉은사막', '도깨비' 등 신작 출시도 이어질 계획이다.

김동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신작 사이클과 중국 판호 발급 재개가 게임업종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또한 8월 크래프톤의 상장과 맞물려 게임업종의 투자 파이는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이은 시총 2위는 2차전지 소재업체인 에코프로비엠

(6조3500억원)이다. 에코프로비엠은 향후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김광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에코프로비엠은 국내 배터리 3사 중 2개사(SK이노베이션, 삼성SDI)의 양극재 메인 벤더로서 향후 시장 기대치를 대폭 상회하는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미디어대표주인 CJ ENM(씨제이엔엠)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지난해 말 시총 12위에서 반년 만에 상위 8위로 올라섰다.

CJ ENM은 미디어 부문의 광고 경기 회복과 티빙(TVING) 가입자 수 증가에 따라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진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미디어의 경우 티빙 유료가입자수 확대, '마인', '빈센조' 등 화제성 드라마 및 예능으로 인한 광고 단가 상승 지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증가가 추정된다"며 "강력한 콘텐츠와 자체 플랫폼을 통한 유료가입자수 확대 지속 여부에 관심을 기울일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DL이앤씨, 국내 최대 철도 아치교량 건설

서해선 복선전철 핵심공정 마무리  
평택~아산 구간... 철도교량 다양  
국내 첫 대선식 일괄 가설 공법 활용

DL이앤씨는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의 핵심공정으로 평가받는 국내 최대의 철도 아치교 건설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교량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과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을 가로지르는 안성천 위에 건설됐다. 올해 2월부터 130일 동안 육상에서 제작된 아치는 지난 16일 오전 바지선에 옮겨졌다. 선적 후 총 11시간 30분의 작업시간을 거쳐 안성천 수면으로부터 23m 높이에 있는 교각에 안전하게 설치됐다. 이번 설치작업으로 DL이앤씨가 건설중인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 5공구 전 구간이 연결됐다. 아치교량은 총 5개의 아치 구조물로 구성됐다. 가장 큰 아치 양쪽으로 1681톤의 아치 2개와 1255톤의 아치 2개가 연결되는 모습이다. 이번에 설치한 아치는 길이 155m, 높이 46.5m, 무게는 2726톤으로 가장 크다. 한강에 설치된 서강대교 아치교와 비슷한 규모다.



DL이앤씨 서해선 홍성송산 복선전철 아치교.

DL이앤씨

DL이앤씨는 철도교량 시공에 국내 최초로 대선식 일괄 가설 공법을 활용했으며 아치형식의 디자인을 채택했다.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사업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총 10개의 공구로 나눠 발주했다. 서해안축 남북 중단 철도망을 구축해 교통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한편, 물동량 급증으로 선로용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경부선의 용량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최고 250km/h의 설계 속도를 반영해 시공돼 고속 여객열차와 일반 화물열차가 함께

활용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아산에서 평택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5999m에 이르는 5공구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DL이앤씨가 건설을 담당할 5공구는 철도교량의 박람회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치교량을 포함해 총 6개 형식의 다양한 철도교량이 시공됐다. 주거 지역 인근에는 소음 방지에 탁월한 사판교를 시공하고 농경지에는 고속철도 운행에도 지반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PSC(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박스거더교가 시공됐다.

/정연우 기자 ywj964@

## '골든타임' 실기 우려에 커지는 총수 공백

### ▶▶ 1면 '삼성, 반도체 이어'서 계속

대규모 투자 실탄 충분하지만  
JY 부재로 최종 실행에 발목

시스템반도체 육성 전략도 표류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비전 2030'을 천명하고 극자외선(EUV) 공정을 발빠르게 도입하면서 업계 1위 TSMC 추격 발판을 마련했지만, TSMC가 수백조원 규모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다시 앞서나가는 모습이다.

TSMC는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증설하면서 생산 능력을 크게 제고한데 이어, 일본에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패키징 기술력까지 끌어올려가고 있다. 삼성전자가 평택과 미국 등에 추가 투자와 함께 삼성전기 사업부를 인수하며 패키징 능력을 크게 높였지만, TSMC가 즉시 대응에 나서면서 점유율 방어에 나선 것.

삼성전자가 TSMC에 그나마 우위인 분야는 이제 3나노 이하 공정에 적용 예정인 게이트올라라운드(GAA) 정도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TSMC에 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텔도 'IDM2.0'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삼성전자를 정조준했다. 이미 미국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대규모 투자를 현실화했고, 파운드리 업계 3위인 글로벌파운드리 인수설까지 나오고 있다.

### ◆투자 실행 '아리송'

삼성전자도 위기를 벗어날 계획을 가지고는 있다. 당장 다음달 연평에서는 성능을 높이면서도 가격을 낮춘 폴더블 폰 신제품을 공개할 계획,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 다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메모리 역시 양산이 다소 늦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삼성전자 뉴스룸

은 대신 성능과 수율 면에서는 경쟁사 대비 훨씬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국내외 투자 일정도 조율 중이다. 평택사업장에 이어 미국 오스틴 공장 증설로 파운드리 경쟁력을 대폭 제고할 예정이다. 반도체 소재와 장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사들과 손잡고 노력하며 '소부장 독립'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올 초 의미있는 인수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렸다고 공언한 상태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현금만 100조원 이상, 대규모 업체를 충분히 인수하고도 남을만한 금액이다.

문제는 실행이다. 삼성전자는 20조 원 규모 미국 파운드리 공장 투자를 결정해놓고서도 부지를 최종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지 지역 정부와 협상이 길어진 때문으로 알려졌다. 인수 합병 작업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네덜란드 NXP 등 전장 반도체 기업이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이미 몸값이 뒤편에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 부재 문제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책임지고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경영자가 자리를 비우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것. 코로나19 이후 투자와 M&A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김재용 기자 juk@

## “가계빚 많을수록 집값 하락시 경기 타격”

### 한은 '주택가격 변동, 물가' 보고서

최근과 같이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할 경우 주택 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가계부채가 확대된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주택가격 변동이 실물·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비대칭성 분석'에 따르면 주택가격 변동이 실물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가격 변동 방향에 따라

비대칭적인 모습이다.

한은은 '주택가격→실물경기→인플레이션' 경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이 주택가격 상승기와 하락기에 따라 실물경기와 물가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했다. 이론적으로 주택가격은 부의 효과를 통해 실물경기 및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실증적으로 최근 들어 부의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